

## 2026년 3월 글로벌 보안 전망: 헝가리

- 4월 2일 총선 앞둔 헝가리, 전국적 긴장 고조 전망
- 부다페스트 등 도심 시위 확산 우려... 충돌·소수자 괴롭힘 및 폭력 사태 가능성 증가



Source: Politico

### 현황

4월 12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갈등과 신경전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권자들은 헝가리의 혼합형 선거제도에 따라 199석 규모의 새로운 국회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 중 106석은 소선거구에서, 93석은 전국정당명부를 통해 선출됩니다. 이번 선거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과 맞물려 있으며, 오르반 총리는 5연임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존중과 자유(Tisza)당의 페테르 마자르 대표가 총리직의 주요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기 총리 선출을 위해서는 비밀투표를 통해 새로 구성된 국회의원 중 최소 5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지난 네 차례 총선에서 모두 승리하며, 매 선거마다 자당인 피데스(Fidesz, 헝가리 시민연합)가 의회 다수 의석을 확보해 왔습니다. 반면, 2020년에 창당되고 2024년부터 마자르가 이끄는 Tisza 당은 비교적 신생 정당입니다. Tisza는 피데스보다 EU 친화적이고 제도 개혁을 강조하는 보다 중도적인 노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자르의 선거 캠페인은 지난 16년간 피데스 집권 아래에서 경제가 나빠졌다는 인식, 언론·정보 환경이 점점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 그리고 부패가 늘어났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 피데스의 주요 인사였던 만큼, 이민 문제나 LGBTQ 권리, 학계와 시민단체(NGO)의 독립성과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세우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월 15일, 오르반 총리는 EU가 러시아보다 헝가리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EU가 헝가리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며 EU와의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한 EU의 결정 과정에서, 다른 EU 국가들이 고의적으로 헝가리의 반대를 피해 가기 위해 복잡한 시도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헝가리의 법치주의가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로 인해 EU는 헝가리에 대한 대부분의 재정 지원을 동결한 상태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유럽의회는 2025년 11월 헝가리에 대한 추가 재정 제재 및 의결권 정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양 후보 모두 현상 유지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의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자르는 EU 자금 동결 해제를 위해 일부 양보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민주주의 제도 강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피데스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흡수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isza 는 피데스와 마찬가지로 이민 할당제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가속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 발표된 다수 여론조사에서는 Tisza가 피데스를 약 10%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예 지도자인 마자르에 대한 기대감을 당의 실제 의회 다수 확보 가능성과 혼동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한편 오르반은 국내 지지 기반과 더불어 미국 행정부의 지지까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최근 부다페스트를 방문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을 통해 재확인되었습니다. 일부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피데스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오르반과 마자르 간 접전은 선거 국면을 더욱 긴장되고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악화 지표	평가
피데스 주도 정부가 선거일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보안 조치를 확대하는 경우	검문소 설치, 통행 금지 등 강화된 보안 조치는 공공의 긴장을 고조시켜 국지적 소요 및 인력 활동-물류 운영에 대한 차질 위험 증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인 고위 관료에 대한 감시 강화	정부의 외국의 내정 간섭 대응 명분의 야권 캠페인(친 EU·반부패·친우크라이나) 지지 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시 활동 가능성 증가. 임직원은 불시 검문, 데이터 접근 요구, 조사·질문 등에 노출될 위험 증가. 비자 발급 지연, 친정부 성향 언론을 통한 공개 비난, 정치적 동기가 의심되는 법 집행 조치 발생 가능성 증가
피데스 지도부가 소수자 권리 제한을 시사하는 선동적 발언을 하는 경우	정치적 스캔들 발생 또는 정부의 자극적·선동적 발표가 촉매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대규모 시위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음. 시위 확대 시 경쟁 시위대 간 또는 보안 당국과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지적 이동 제한 및 운영 차질 위험 증가

※황색: 발생 가능성 다수, 영향 제한적/ 주황색: 일부 변화 가능성 존재, 영향 고조/적색: 발생 가능성, 발생시 영향 심각

## 전망

선거 활동은 전반적인 치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정치 집회는 질서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투표 당일 역시 각 정당이 투표소에서 위협적 전술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한 대체로 평화롭게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주요 정치 행사 인근에서는 단기적인 교통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안 당국은 대체로 상황을 통제할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나, 시위 및 맞불 집회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소수자에 대한 자극적 발언, 딥페이크 및 AI 생성 콘텐츠 사용 등 지금까지 나타난 양극화적 선거 전략이 지속될 경우, 대규모 시위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록적인 참석 규모를 감안할 때, 시위 인원은 수만 명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위대는 도로를 점거하거나 집회 주변에서 반대 세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히 LGBTQ를 포함한 소수자 집단과 명확히 연관된 인물은 긴장된 정치 환경 속에서 괴롭힘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당국이 야권 지지자로 인식하는 인물에 대한 감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야권 인사, 언론인, 시민사회 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시 활동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제 기업이 직접적으로 표적이 되었다는 중대한 보고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폭탄 허위 신고로 대피 조치가 시행될 위험도 낮지만 존재합니다. 1월에는 우크라이나 관련 인물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탄 위협으로 여러 학교가 대피한 사례가 보도되었으나, 수사 결과 이를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학교 대상 사건은 2025년 1월에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End Report